

# 朴대통령,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 비상임이사국 증설이 바람직 인도 국영TV 인터뷰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유엔 안전 보장이사국 개혁은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기보다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등이 자리 증설을 통한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하는 인도의 국영 두르다르산 TV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해 "안보리 개혁은 책임성·민주성·대표성·효율성 이런 것이 동시에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정기적인 선거

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한국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의 역사 왜곡 등의 도발 행태로 인해 한국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언급, "이번에 신년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다. 그걸 토대로 뭔가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열어보고자 한 건데 그것을 북한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말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루는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연속 거절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회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민간교류 같은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그리고 안전까지도 인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전 세일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두 나라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40년을 열어갈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뷰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이뤄지는 인도 국빈 방문을 맞아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스위스 국빈방문 및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朴대통령 인도·스위스 국빈방문 출국

### 22일까지 8일간... 다보스포럼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인도와 스위스 국빈방문과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에 주력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 18일까지 예정된 인도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도착 직후 저녁에 재외동포 간담회를 한 뒤 16일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 참석을 필두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은 임석하에 협정 및 MOU 서명식을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저녁에는 무커지 대통령 주재 국빈만찬에 공식수행원, 경제인대표 등과 함께 참석한다.

17일에는 IT 시장개척 EXPO 및 ICT 비즈니스 간담회에 참석하고, 이어 대한상와 인도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한-인도 경제협력포럼 오찬간담회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스위스 연방정부의 초청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베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

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스위스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가 인구 800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이지만 우수한 과학기술과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효율적인 직업교육체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스위스가 지닌 강점들을 직접 보고 창조경제와의 연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포럼 첫 번째 전체 세션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개막연설을 통해 창조경제 등 정부의 경제혁신 정책을 소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 北 핵탐재 미사일 서울까지 11분15초면 도달

### '北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 세미나서 제기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남쪽으로 발사하면 11분1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 군이 현재 확보한 방어체계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해 '발사·추진 단계-중간비행단계-종말단계(상층/하층)' 비행체적에서 다단계 요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봉환 한남대 교수(국방무기체

계·M&S 연구센터장)는 15일 '北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자체 각을 조정해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서울로 향할

때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았다. 최 교수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으로 대표되는 정찰, 타격능력 확보 노력에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의 완전 제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거리와 고도에서 다단계에 걸쳐 요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으로 대표되는 정찰, 타격능력 확보 노력에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의 완전 제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거리와 고도에서 다단계에 걸쳐 요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인사 지연 공직사회 '슬렁'

### 규모도 예상보다 축소 이번주 4급 승진 예고

광주시 정기인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인사로비'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조직위원회 정원조정 지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U대회 조직위측과 광주시의 미숙한 능력(인사)행정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로 예정됐던 2014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지난 10일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또 연기된 상태다. 시는 그동안 매년 12월이면 다음해 상반기 인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안전행정부와 U대회 조직위 사무처 정원조정 승인을 놓고 의견을 보이면서 인사가 지연됐다.

시는 U대회 부처인 문체부를 거쳐 안행부에 국가직과 지방직 3급(부이사관) 각각 1명 등 2명과 4급(서기관) 3명 등의 확대를 골자로 한 U대회 조직위 정원조정을 요구해 왔으나, 안행부는 인천아시아게임 등 타 대회 정원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결국 지난 13~14일 3급

은 증원하지 않고, 4급도 3명 중 1명은 U대회 경기장이 많은 전남도의 몫으로 하는 안행부의 정원 조정 최종 승인을 받아들였다. U대회 조직위 규모도 예초 400명 수준에서 376명으로 축소됐다.

U대회 조직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체 정원 중 30명 정도를 국가공무원을 과건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U대회 조직위는 이날부터 정원확대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에 들어간 상태다. 광주시도 인사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이번 주 내에 4급 이상 승진 인사를 예고할 계획이며, 전보 등 전체 인사는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 인사는 U대회 조직위의 정원확대 등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고, 시에 직원 과건 요청이 들어온 뒤에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한번 인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인사 지연에 3급 정원 확대 실패 등으로 승진도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직원들의 인사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한 직원은 "인사가 길어지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동요되는가 하면 일부 직원 은 여기저기에 인사를 부탁하는 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근무 분위기가 엉망이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게이츠 전 미국방, 회고록서 盧 전 대통령 비난 논란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신나간 인물'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게이츠 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시중에 판매된 회고록 '임무'(Duty)에서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당시 제임 중이던 노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고 소개한 뒤 "나는 그가 반미적(anti-American)이고 아마도 약간 정신나갔다(crazy)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체라고 지적했다고 전하면서 후미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게이츠 전 장관이 이미 3년 전에 현직을 떠나긴 했지만 외국의 전직 정상을 공개적으로 원색 비난한 것은 도가 지나친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신력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아주 친미적이었다"면서 "당시 싱가포르에서 한 개별면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소개했다.

또 상그라라 대화 직전에 발생했던 천안함 사태를 언급한 뒤 "이 전 대통령은 중국 총리에게 '북한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내게 말했다고 나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급매물" 삽니다

1. 경매 예정 / 진행중인 물건
2. 공시지가 50% 선 부동산
3. 기타 급매 부동산

##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20% 보장  
투자금 3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정보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